



우 제 흥
인하대학교병원장
한국 국제의료서비스
협의회 회장

글로벌 시대의 한국의료 마케팅

오늘날 의료계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병원뿐 아니라 선진국의 유명 의료기관과도 치열한 경쟁을 펼쳐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였다. ‘발전이 없으면 곧 도태 된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강한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

최근의 주변 환경변화는 한미 FTA 타결, 국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등의 영향으로 의료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대하여 개방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의료분야의 시장개방에 따른 문제점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는 진료비 인상, 고급 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 국민의료기관 영리법인 허용, 병원계층간 격차 심화 등으로 기존의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으며, 위암 등 6대 암 치료수준은 미국을 앞서 있고, 난소암 등도 거의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 또한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고, 미국과 비교해도 1/3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볼 때 우리 나라 의료서비스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최근에 발표된 재정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치료 목적의 여행으로 지출된 해외 원정 연간의료비는 약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은 외국인수는 약 10,000여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 정부발표자료). 인하대 병원에서도 지난 1년간 약 300여명의 해외동포의 검진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해외 원정 의료비 유출을 줄이면서 우리나라 의료산업을 차세대 유망 수출산업으로 키워 국가성장 동력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 의료인이 힘을 모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해외

환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 의료서비스를 해외에 널리 알리고 환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처음에는 정부와 병원위주로 운영되겠지만 차츰 관광공사, 보험사, 여행사 등 해외환자 유치와 관련된 업체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동포는 세계 40여 개 국에 약 7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협의체가 1차 타깃으로 삼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에만 약 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5월경 국내 의료에 대한 미국 현지의 관심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미국 LA에서 현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 의료기술 수준을 외국에 알리기 위해 5월말까지 외국어로 된 의료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홍보책자 및 CD를 제작하고, 해외 의료관련 종사자의 체험서비스를 실시하며, 저개발 국가의 의료 인력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 의료기술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보다 특화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우위를 점하는 의료서비스가 있다고 해도 그에 따른 해외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각 병원별로 해외환자를 유치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본 협의체가 주축이 되어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과 각 병원의 특징 및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개별 의료기관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진료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 같은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력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작은 행보를 시작했다. 성과가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홍보의 법적 근거와 비자발급 등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다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투자 마인드를 갖고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국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의료인들은 치열한 레드오션 환경에서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한다. 우리 자신을 이길 때 남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본분을 지키며, 우리 속에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

